

# 군용전자 기술 특집

## 특집 편집기



유 영 배 상무

삼 성 전 자 (주)

一個 國家의 軍事力은 軍用電子 技術 水準 및 그의 使用으로 評價된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軍用電子 技術은 世界2次大戰 當時 레이더의 效用性으로 그의 重要性이 대두되어 끊임없는 관심과 發展의 對象으로 主目받아 왔고 이제는 대부분의 武器가 電子의 制御에 의할 뿐아니라 起動性을 위한 情報 收集 및 通信의 重要性 또한 충분히 認識되어 있는 실정이다. 冷戰終熄 以後, 各國의 國防豫算 減縮 추세로 軍用電子 技術의 發展에 대한 관심이 多少 떨어지는 傾向이 있는 듯 하였으나, 最近의 걸프전 以後 그의 重要度를 새삼 認識하고 知能化된 尖端武器의 開發 必要性이 強調 되면서 軍用電子 技術의 發展 必要性이 한층 더 加重되어 가고있다. 그중, 걸프전에서 使用된 軍用電子 部門인 C3I로 불리는 通信部門, F117의 活躍으로 대두된 스마트 탄 및 對 電子戰 部門, 크루즈 미사일로 대표된 센서 및 制御 部門등은 물론이며 對 潛水艦 武器 등에서 볼 수 있는 海洋 센서나 人工衛星 센서 및 通信 部門등이 代表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더우기, 軍用電子 技術의 發展은 民間企業에 까지 커다란 影響을 끼쳐, 이제는 一個 國家의 軍事力만이 아니라 國力을 評價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로 認識되고 있다. 이로 인해, 軍用電子 技術은 向後 계속 發展해 나갈 것이며 個人의 社會生活에 까지 至大한 影響을 줄 것으로 豫想된다.

본 特輯號에서 방대한 軍用電子 領域을 全部 다루기에는 무리인 것이 事實이나 깊이 보다는 多樣한 領域을 살펴봄으로써 軍用電子 技術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그의 重要性을 새삼 알리고자 編輯에 苦心하였다. 총 9編의 論文은 각 分野에서 國內의 技術을 先導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 準備되었으며, 裝備에 대한 論文 2編, 技術動向에 대한 論文 3編, 技術 紹介 論文 3編 그리고 실제 設計 技術에 관한 論文 1編으로 構成되어 있다. 內容上에서는 學會 電子 技術人들의 一般性을 考慮하여 되도록 깊은 軍用電子 專門性을 피하고 技術 紹介 및 情報 提供의 次元에서 準備되었다.

끝으로 본 特輯을 위하여 原稿를 執筆하여 주신 여러분 및 學會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讀者들께서도 精誠들여 만들어진 이 特輯 內容을 관심있게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新進 技術人들의 관심을 期待합니다. 많은 技術人들의 軍用電子技術에 대한 理解 및 同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